투데이 칼럼

북한 모리토리엄 철회

정 복 규

논설위원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을 재개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도 신형 ICBM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다.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검은색 항공 점퍼 차림으로 개발국을 찾은 김 위원장은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개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한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찰위성 개발은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제시한 국방력 강화 5대 핵심과제다.

실제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정찰위성은 탄두부와 대기권 재진입만 빼면 ICBM과 유사한 기술로 평가된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ICBM까지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개·보수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월 18일과 3월 4일 미국 상업 위성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불과 보름 전 공터였던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기존 건물이 있던 곳에도 건축용 목재가 쌓여 있다. 북한이 갱도 공사 등에 상당량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분석되며,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활동이 감지됐다.

만약 핵실험이 재개되면 대형 수소폭탄이나 새로운 전술핵무기를 시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영변 핵 단지 안에 5MW 원자로를 가동하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왕이 부장은 2018년 이후 북한이 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핵 해결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제로섬 게임식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준비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파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동향으로 보면 소위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술 핵무기를 비롯 극초음속 미사일, ICBM의 개발 개량, 핵 잠수함, 우주 감시 체제 등 5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일곱 차례의 미사일 발사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대대적인 도발을 할 거라는 관측이 있다. 북한이 그런 전략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금지돼있는 행동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모두 우리나라에 다 중요한 이웃이다. 잘 지내야 될 그런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외교적 바탕 위에서 한중 수교를 했고 또 한중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한중 관계가 발전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 두 나라 관계를 잘 조화하고 원칙 있게 대응을 하면 된다.

먼저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 즉 발사 유예를 유지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반전 시위하며 울먹이는 여성들

지난 2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시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한 달을 맞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반전 시위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희생자 유품 찾아 옮기는 구조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탕현의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구조대가 희생자 소지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사 설

렌터카 사기사건 전말

최근 230억원대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사기'와 관련해 주범을 비롯한 그 일당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3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북 도내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35)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딜러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차렸다. 해당 지점 운영에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인들에게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은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피해자 52명의 명의로 차량을 장기 대여하거나 차량 87대를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235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차량은 총 261대였다. 그중 외제 차가 55%, 국산 차는 45%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사기 행위와 관련한 고소장이 전주, 익산, 부안 등 도내 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됐다. A씨는 재대여 과정에서 받은 보증금 20억 원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대여 비용을 내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5억 6000만 원을 3년간 생활비 등으로 쓰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자동차를 찾기도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대여나 리스를 하기에 앞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어르신 공연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최근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주관 단체로 선정돼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관 단체로 서정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국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버마이크 권역 주관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해 강원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등 모두 5개 재단이다.

'실버마이크' 전북권 사업 이름은 'Jeolla 멋_眞' 이다. 이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어르신 공연팀의 공연을 통해 전라북도의 참된 멋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어르신 공연팀에게 양질의 무대를 제공해 공연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어르신 중심 무대 공연 마련을 통해 주체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어르신 공연팀은 구성원 전원이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공연팀이다. 총 20개 팀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대중음악, 양악·국악,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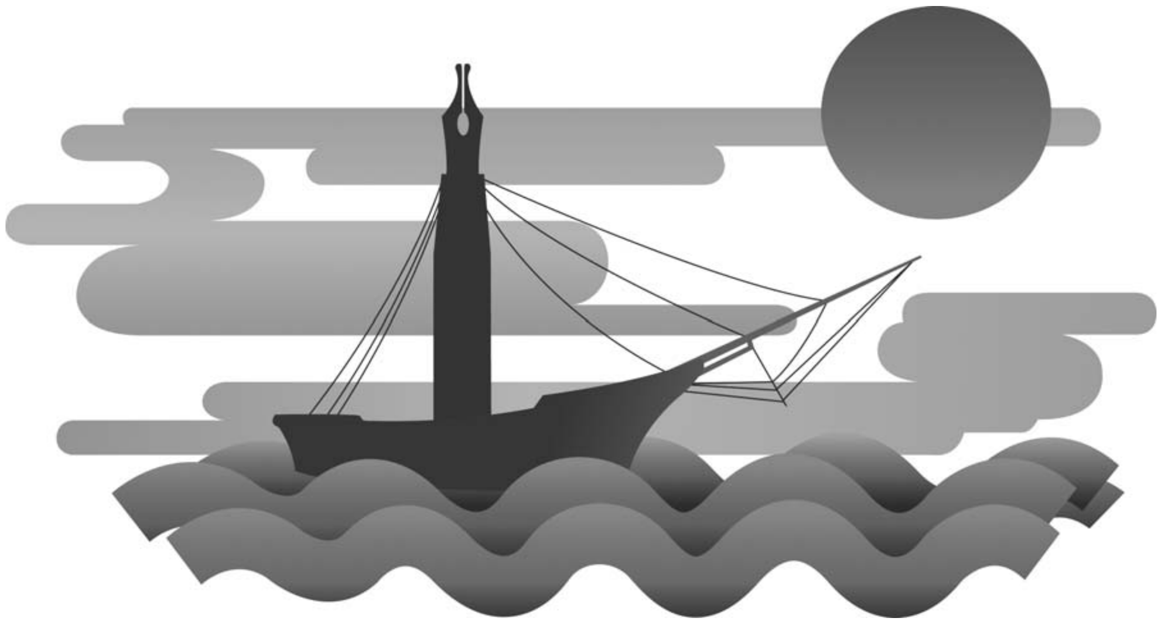
오는 5월부터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한 팀당 5회씩 공연을 진행한다. 총 100회의 공연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 설명과 모집 기간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2022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다양한 지역·세대 간 교류를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 공연팀의 한 단계 발전된 실버 예술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어르신 백세세대에 크게 부합되는 사업이다.

나이가 들수록 문화예술을 접하도록 배려하는 일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다. 실버마이크 사업이 크게 발전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